

Effects of Movie-based Awareness Improvement Program on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among University Nursing Students

Jeong Yee Bae^{1#}, Min Yeong Kwak²⁺, Eun Ha Kim³, Su Mi Kang⁴, Han Na Yi³

¹ Department of Nursing and Inje Universit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afe Community, Inje University, 75, Bokji-ro, Busanjin-gu, Busan, Korea

²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Kyungsoo University, 309 Suyeong-ro, Nam-gu, Busan, Korea

³ Busan Seo-gu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Buyoung-ro 30, Seo-gu, Busan, Korea

⁴ Department of Nursing, Daedong College, 27, Dongbugok-ro, Geumjeong-gu, Busan,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apply a movie-based program to university nursing students to improve their negative awareness of mentally ill persons. The study used a quasi-experimental pretest-posttest design with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The program decreased the scores of authoritarianism and social restrictiveness toward mentally ill persons and increased the scores of benevolence and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among the experimental group than the control group who did not participate in the program. The movie-based mental illness awareness improvement program was found to be an effective intervention in improving the attitude of university nursing students toward mentally ill pers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application of this program to various groups to promote national awareness.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long-term follow-up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consider individual personality differences and verify the persistence of the effects through repeated measurements.

Key words: mentally ill persons, awareness, attitude, university nursing students, movie therapy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지난 4월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살인 사건이 조현병 환자의 피해망상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Jo, 2019). 특히 대부분의 언론 보도는 정신질환

자를 부정적인 속성으로 표현하고 정신질환자가 위험하고 폭력적이라는 편견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는 지역사회 전반에 위기를 가져올 만큼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Baek, 2017). 이는 정신질환자로 하여금 사회적 낙인을 우려하여 증상을 숨기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게 하며, 조절되지 않는 정신병적 증상은 다시 편견과 차별을 야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Baek, 2017).

The 1st author: Jeong Yee Bae, Tel. +82-51-890-6823, Fax. +82-51-896-9840, e-mail. jibai@inje.ac.kr

+ Corresponding author: Min Yeong Kwak, Tel. +82-51-663-4866, e-mail. mykwak@ks.ac.kr

하지만 많은 언론에서 보도하듯 조현병 환자가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더 높은 것은 아니며, 전체 범죄 중 조현병 환자의 범죄 비율은 0.04%로 일반인의 0.1%에 비해 오히려 낮은 비중이다(Jo, 2019). 또한 정신질환과 범죄와의 관계를 연구한 연구들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성향이 일반인보다 더 높다는 고정관념을 지지하는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며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Park,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반인뿐만 아니라 간호사를 비롯한 정신건강 전문인조차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5).

정신질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부정적인 인식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이어져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간호뿐 아니라, 정신보건 정책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에도 중요한 역할을 미치게 된다.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임상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 영역에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일차 치료(primary care)를 제공하며, 그 밖에도 위기 중재자, 사례관리자, 자문가, 상담가, 교육자, 감독자, 프로그램 개발자 및 연구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개선되어야 한다(Kim, 2005).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매년 4월 4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지정하여 정신질환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캠페인과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 실제 어떤 변화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효과성 평가연구는 드문 실정이며(Yang, 2017),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정신간호학 강의 및 실습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에 머물렀다(Noh, 2000; Kim & Eom, 2005).

영화는 매체의 특성상 다수의 대인관계도 짧은 시간 동안 압축하여 상징적으로 보여 줄 수 있으며 대인관계의 상대성과 왜곡을 한 눈에 조명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집단 교육에서 영화를 활용할 경우 집단에

에너지를 주고 토론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진다(Jang, 2014). 따라서 간호대학생에게 영화를 활용하여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영화 주인공의 이상행동을 시각적 이미지화하여 최적의 생생함을 제공하고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공감(empathy)을 이끌어 내게 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에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B광역시 소재 2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임상실습 현장이나 졸업 후 임상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 영역에서 정신질환자를 간호하는 상황에 적용하게 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을 위한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3. 연구 가설

가설 1.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권위주의 점수가 감소할 것이다.

가설 2.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비심 점수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3.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사회성

활 제한 점수가 감소할 것이다.

가설 4.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지역사회정신보건 이념 점수가 증가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위한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를 이용한 유사 실험설계 연구이다.

2. 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B광역시 소재 A대학과 B대학의 간호학과에 연구참여자 모집공고를 하고,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대학생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중재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학교를 나누어 배정하였으며, 실험군 35명, 대조군 35명으로 총 70명이 선정되었다. 실험기간동안 실험군 중 5명이 프로그램에 3회 불참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대조군 중 3명이 사후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자는 실험군 30명, 대조군 32명이었다.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간호학과 3학년 재학생으로 정신간호학 실습을 하지 않았고, 유사 프로그램 및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자로 하였다.

3. 도구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Taylor & Dear(1981)의 개발 도구인 Community Attitude toward the Mentally Ill(CAMI)를 Lee, et. al.(1996)이 한국어로 번역하여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의 다차원 측정 도구로 권위주의(Authoritarianism), 사회생활 제한(Social restrictiveness),

자비심(Benevolence)과 지역사회정신보건 이념(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의 4개 하위 요인별 10문항으로 구성된 총 40문항 척도이다.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1점부터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5점까지의 5점 Likert scale로 각각의 하위 요인은 긍정적 태도 5문항, 부정적 태도 5문항이 반영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권위주의와 사회생활 제한의 부정적 문항을 역문항으로 처리하고 자비심과 지역사회정신보건 이념의 긍정적 문항을 역문항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권위주의, 사회생활 제한의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질환자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하며, 자비심, 지역사회정신보건 이념의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질환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Taylor & Dear(1981) 연구에서의 도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권위주의 .68, 사회생활 제한 .80, 자비심 .76, 지역사회정신보건 이념 .88이었고, Lee, et. al.(1996)이 번역하여 타당화한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권위주의 .57, 사회생활 제한 .72, 자비심 .64, 지역사회정신보건 이념 .84이었다. 구체적인 하위 요인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위 요인인 권위주의는 정신질환자에게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고 강압적이며 비인도주의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견해이고, 둘째 하위 요인인 사회생활 제한은 정신질환자가 사회에 위협적이므로 사회적으로 규제하고 사회적인 기능을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셋째 하위 요인인 자비심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전문적 이론이나 과학적 치료보다 종교와 인도주의에 입각한 도덕적 태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온정주의적 견해이고, 넷째 하위 요인인 지역사회정신보건 이념은 지역사회정신보건 운동 원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인식과 정신질환자와 지역사회의 접촉에 대한 내용이다.

4. 자료 수집

자료 수집 기간은 2018년 9월 3일부터 2018년 10월 26일까지이고 구체적인 연구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Table 1. Movie-based mental illness awareness improvement program for nursing university students

Session	Content	Theme (Movie)
1	Introduce the program Pre-program examination Introduce self Sharing the awareness of mental illness before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Orientation
2	Sharing the awareness about 'mental illness (autism)' Movie appreciation : I Am Sam Sharing the thoughts on movies Will people diagnosed with mental illness be able to raise babies? Sharing the thoughts on autism	I Am Sam
3	Sharing the awareness about 'mental illness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OCD)' Movie appreciation : As Good As It Gets Sharing the thoughts on movies What if my friend is OCD? Sharing the thoughts on OCD	As Good As It Gets
4	Sharing the awareness about 'mental illness (Schizophrenia)' Movie appreciation : Shine Sharing the thoughts on movies What if a neighbor with schizophrenia moved in? Sharing the thoughts on schizophrenia	Shine
5	Finishing the program Post-program examination Sharing the awareness of mental illness after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Sharing thoughts on changing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before and after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Evaluation

1) 간호대학생을 위한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검증

프로그램 내용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화를 활용한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으로 Baek(2007), Jang(2008), Kim & Kim(2013)의 선행연구와 정신질환 영화문헌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프로그램은 정신간호학교수 3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 정신건강전문간호사 1인, 정신건강전문요원 3인으로 구성된 전문가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은 후 수정·보완하여 최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주 1회, 회기 당 150분으로 총 5회기로 5주간 진행되었으며 S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실에서 시행하였다. 해당 회기와 관련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나누고 영화를 감상한 뒤 영화에 대한 소감,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나누기를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총 35명이었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나누는 데 적합한 인원인 11명, 12명, 12명씩 3개조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탈락자를 제외한 32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대조군은 실험군의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구체적

인 프로그램의 내용은 <Table 1>과 같다.

2) 사전사후 조사

실험군은 프로그램 1회기 시작 전 사전조사를 시행하였고 사후조사는 프로그램 5회기 종료 후 진행하였다. 대조군은 사전조사 5주후 사후조사를 시행하였다.

5. 자료 분석

SPSS/WIN 21.0 프로그램으로 연구목적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로 조사하였다. 둘째,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및 종속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은 X^2 -test, Fisher's exact test와 Independent t-test로 검정하였다. 셋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정은 Cronbach's α 로 분석하였고, 종속변수의 정규성 검정은 Kolmogorov-Smirnov test로 확인하였으며, 두 군의 등분산성 검정은 Levene test를 시행하였다. 넷째, 프로그램의 사전사후 효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전후 변화량의 차이검정은 Independent t-test를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및 사전 동질성 검정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성별은 실험군, 대조군 모두 여자가 더 많았고(90.0%, 84.4%),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chi^2=0.46, p=.709$). 연령은 실험군 평균 21.13±1.36세, 대조군 평균 21.19±1.15세였으며,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chi^2=-0.17, p=.866$). 종교는 실험군은 없는 경우가 60.0%, 대조군은 있는 경우가 56.3%로 많았으며,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chi^2=1.64, p=.201$). 동아리 활동은 두 군 모두 동일한 비율(50.0%)로 하고 있었다. 주거형태의 경우 실험군은 혼자 자취(50.0%), 가족과 동거(46.7%), 기타(3.3%)순이었으며 대조군은 가족과 동거(56.3%), 혼자 자취(43.8%), 기타(0.0%)순이었고,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chi^2=1.47, p=.479$). 이와 같이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별, 나이, 종교, 동아리 활동, 주거형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집단 간 일반적 특성에 대한 사전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2. 종속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중 권위의식 정도는 실험군의 평균 점수 41.69점, 대조군의 평균 점수 40.30점으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41, p=.163$). 자비심은 실험군의 평균 점수 21.75점, 대조군의 평균 점수 22.20점으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0.43, p=.670$). 사회생활 제한은 실험군의 평균 점수 40.19점, 대조군의 평균 점수 37.83점으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58, p=.120$).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 이념은 실험

Table 2. Characteristics and homogeneity of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62)

Variables	Characteristics	Exp.(n=30)	Cont.(n=32)	χ^2 or t	p
		n(%)orM±SD	n(%)orM±SD		
Gender	Male	3(10.0)	5(15.6)	0.46	.709 [†]
	Female	27(90.0)	27(84.4)		
Age (years)		21.13±1.36	21.19±1.15	-0.17	.866
Religion	Yes	12(40.0)	18(56.3)	1.64	.201
	No	18(60.0)	14(43.8)		
Club activities	Yes	15(50.0)	15(50.0)	0.00	1.000
	No	15(50.0)	15(50.0)		
Living with	Family	14(46.7)	18(56.3)	1.47	.479
	Alone	15(50.0)	14(43.8)		
	Other	1(3.3)	0(0.0)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Fisher's exact test

Table 3. Homogeneity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62)

Variables	Exp.(n=30)	Cont.(n=32)	t	p
	M±SD	M±SD		
Authoritarianism	41.69±3.73	40.30±4.01	-1.412	.163
Benevolence	21.75±4.52	22.20±3.67	0.428	.670
Social restrictiveness	40.19±5.76	37.83±6.00	-1.576	.120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19.75±4.73	21.66±3.64	1.779	.080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SD=Standard deviation.

Table 4. Comparisons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he two Group

(N=62)

Variables	Groups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
		M±SD	M±SD	M±SD		
Authoritarianism	Exp.	41.69±3.73	37.81±5.30	-3.86±4.32	3.70	<.001
	Cont.	40.30±4.01	39.90±3.86	-0.40±2.88		
Benevolence	Exp.	21.75±4.52	24.16±4.21	2.41±3.95	-3.43	.001
	Cont.	22.20±3.67	21.77±3.31	-0.43±2.30		
Social restrictiveness	Exp.	40.19±5.76	34.47±5.52	-5.72±5.99	4.85	<.001
	Cont.	37.83±6.00	37.77±6.61	-0.07±2.68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Exp.	19.75±4.73	22.84±5.32	3.09±3.52	-3.35	.001
	Cont.	21.67±3.64	22.17±3.93	0.50±2.43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M=Mean; SD=Standard deviation.

군의 평균 점수 19.75점, 대조군의 평균 점수 21.66점으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78, p=.080$). 즉,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의 모든 하위 요인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종속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3. 간호대학생을 위한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 효과 검증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의 적용 후 연구대상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첫째, 가설 1“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권위주의 점수가 감소할 것이다.”는 분석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권위주의 정도는 시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지지되었다($t=3.70, p<.001$).

둘째, 가설 2“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비심 점수가 증가할 것이다.”는 분석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비심 정도는 시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지지되었다($t=-3.43, p=.001$).

셋째, 가설 3“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사회생활 제한

점수가 감소할 것이다.”는 분석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회생활 제한 정도는 시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지지되었다($t=4.85, p<.001$).

넷째, 가설 4“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지역사회정신보건 이념 점수가 증가할 것이다.”는 분석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지역사회정신보건 이념 정도는 시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지지되었다($t=-3.35, p=.001$).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위한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은 간호대학생의 권위주의, 사회생활 제한을 감소시키고 자비심, 지역사회정신보건 이념을 증가시켜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 대상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인 권위주의 정도는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 전 실험군 41.69점, 대조군 40.30점으로 나타났다. 사회생활 제한 정도는 실험군 40.19점, 대조군 37.83점으로 나타났다. Ju, et. al.(2013)의 정신간호사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권위주의의 정도는 39.4점, 사회생활 제한 정도는 37.4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자의 부정적 태도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Ju, *et al.*(2013)의 연구 대상인 정신간호사는 간호대학생에 비해 정신질환자와의 직접 접촉이 많으며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인 자비심 정도는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 전 실험군 21.75점, 대조군 22.20점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정신보건 이념 정도는 실험군 19.75점, 대조군 21.67점으로 나타났다. Kim & Kim (2013)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비심 정도는 29.60점, 지역사회정신보건 이념 정도는 27.50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자가 덜 긍정적 태도를 나타냈으며, 이는 Rho & Kim(1998)의 연구에서 일반인들에 비해 교사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 보면,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권위주의, 사회생활 제한 점수가 감소하였고 자비심, 지역사회정신보건 이념 정도는 증가하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 Eom(2005)의 연구에서는 정신간호 교육 이후 자비심, 사회생활 제한에서 감소하였고 지역사회정신보건 이념은 증가하여 본 연구 결과와 같았으나, 권위주의에는 변화가 없었다. 한편 Noh(2000)의 연구에서 정신간호학 실습 이후 간호대학생의 권위주의적 태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자비심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이는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교육의 효과에 중요한 요소임을 밝힌 연구로 설명된다. 또한 기존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의 모든 하위 요인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은 본 연구에서는 영화를 교육적 도구로 활용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즉, 영화는 매체 특성상 대인관계의 상대성과 왜곡을 한 눈에 조명하게 하며 집단

교육에서 에너지를 부여하고 토론을 활성화하기 때문이다(Jang, 2014).

본 연구는 일부 지역, 일부 대학의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향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는데 향후에는 연구대상자의 성향 차이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실험처치 직후의 효과만 측정하였으므로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의 효과가 어느 기간 동안 지속되는 지에 대한 반복측정을 통한 효과의 지속성을 검증하는 장기적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위한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은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위주의, 사회생활 제한을 감소시키고 자비심, 지역사회정신보건 이념을 증가시켜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개선에 효과적인 중재법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을 위한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은 기존의 이론영화 주인공의 이상행동을 시각적 이미지화하여 최적의 생생함을 제공하고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공감(empathy)을 이끌어 내게 하는 데 효과적이었으며, 영화를 매개로 하여 집단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토론을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인 중재법이 확인되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는 정신질환자로 하여금 사회적 낙인을 우려하여 증상을 숨기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게 하며, 이로 인해 조절되지 않는 정신병적 증상은 다시 편견과 차별을 야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지역사회 전반에 위기를

가져올 만큼 과급효과가 크고 그 개선이 시급하다. 그러므로 졸업 후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직간접 간호를 수행하는 간호대학생의 인식개선은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본 연구 결과는 의의가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은 일차 의료를 제공하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개선이 필요하므로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Baek, Seung Hwa. 2007. *Movies & Mental Illness: Using Films to Understand Psychopathology*. Seoul: Pyoungmins. 1-374.
- Jang, Deok Ja. 2014. The Group Counseling Based on Movie Therapy: The Advantages and Kinds of Movie Therapy. *Coaching and Consultation*. 49: 279-300.
- Jang, Heon Kwon. 2008. *A Story of Cure Based on Movie*. Seoul: Qumran.
- Ju, Hyo Goung, Kwang Ja Lee, and Hyun Sook Kim. 2013. Effects of Human Rights Sensitivity Program on the Human Rights Consciousness and Attitudes Toward the Mental Illness b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2(3): 169-179.
- Kim, Gyung Hee and Kye Ha Kim. 2013. The Teachers' Attitudes, Discrimination and Causes of Prejudice Towards People with Mental Illnes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2(2): 97-106.
- Kim, Hyun Sook and Mi Ran Eom. 2005. Nursing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Mental Illness and Ego State According to Psychiatric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4(3): 276-284.
- Lee, Ju Hun, Chung Sun Lee, and Tae Yeon Hwang, et. al. 1996. Community Attitude Toward the Mentally Ill in Suseo: Ilweon Community. *Bulletin of Yong-In Psychiatric Institute*. 3(2): 188-199.
- Newspaper of Psychiatry. 2019. 6. 12. Prejudice against Schizophrenia "Even though Diagnosis has Changed". <https://m.post.naver.co>
- m/viewer/postView.nhn? volumeNo=21107929&memberNo=23841638&vType=VERTICAL
- Noh, Choon Hee. 2000. Comparative Study on the Cognition and Attitudes toward the Mental Illness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9(2): 145-155.
- Paek, Hye Jin, Hye Jin Cho, and Jung Hyun Kim. 2017. Content Analysis of News Coverage on Stigma and Attribution Regarding Mental Illnes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1(4): 7-43.
- Park, Ji Seon. 2014. Crime Committed By The Offenders with Schizophrenia: Focusing on the Offense Behavior and Previous Convictions. *The Korean Journal of Forensic Psychology*. 5(1): 1-14.
- Rho, Eun Sun and Sung Hee Kim. 1998. A Study on Middle and Highschool Teacher's Opinion about Mental Illn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7(2): 398-406.
- Taylor, S. Martin and Michael J. Dear. 1981. Scaling Community Attitudes Toward the Mentally Ill. *Schizophrenia Bulletin*. 7(2): 225-240.
- Yang, Ji Eun. 2017. A Study on Evaluating the Impact of Mental Disorder Awareness Improvement Program for Adolescent. Master's Thesis. Ehwa Womans University.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김경희, 김계하. 2013. 정신질환자에 대한 교사의 태도 및 차별과 편견 원인. *정신간호학회지*. 22(2): 97-106.
- 김현숙, 엄미란. 2005. 간호대학생의 정신간호 교육정도에 따른 자아상태와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4(3): 276-284.
- 노은선, 김성희. 1998. 중고등학교 교사의 정신질환에 대한 견해. *정신간호학회지*. 7(2): 398-406.
- 노춘희. 2000. 정신간호실습교육 전, 후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비교. *정신간호학회지*. 9(2): 145-155.
- 박지선. 2014.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법정*. 5(1): 1-14.
- 백승화. 2007. *영화속의 정신장애*. 서울: 평민사. 1-374.
- 백혜진, 조혜진, 김정현. 2017. 정신질환의 낙인과 귀인에 대한

- 언론 보도 분석. 한국언론학보. 61(4): 7-43.
- 양지은. 2017. 청소년을 위한 정신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의 효과성.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주훈, 이충순, 황태연 외. 1996. 수서: 일원 지역주민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용인정신의학보. 3(2): 188-199.
- 장덕자. 2014. 영화치료 집단상담: 영화치료의 장점과 종류. 상담과지도. 49: 279-300.
- 장현권. 2008. 영화 치유 이야기. 서울: 쿼란출판사.
- 정신의학신문. 2019년 6월 12일자. “이름까지 바꿨는데” 조현병에 대한 편견.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1107929&memberNo=23841638&vType=VERTICAL>
- 주호경, 이광자, 김현숙. 2013. 인권감수성 훈련이 정신간호사의 인권의식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22(3): 169-179.

Received: Nov. 14, 2019 / Revised: Dec. 31, 2019 / Accepted: Jan. 3, 2020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국문초록 정신보건법 개정 이후 정신질환자 탈원화와 지역사회 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살인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비의료인인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위한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를 이용한 유사실험 연구이다.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위주의, 사회생활 제한 점수가 감소하였고, 자비심, 지역사회정신보건 이념 점수가 증가하였다. 영화기반 정신질환 인식개선 프로그램은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변화에 효과적인 중재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민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의 성향 차이를 고려하고 반복측정을 통해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을 검증하는 추후연구를 제언한다.

주제어 : 정신질환자, 인식, 태도, 간호대학생, 영화요법

- Profiles**
- Jeong Yee Bae** : She received her B.S. and M.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her Ph.D. from Ewha Womans University. In 2015, she received training as a visiting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in the USA. Since 1996, she has been serving as a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She is Currently Chair of Inje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afe Community, Director of International Safe Community Research Center of Busan Metropolitan City and Busan Seo-gu Mental Health Center. She is also working as a certified International Safe Community examiner, a policy advisor to the Korean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chairman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Her major areas of research interest include injury prevention and safe promotion, the promotion of mental health, PTSD and health informatics. She has been involved in undertaking approximately 80 government-invested projects in cooperation wit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Busan Metropolitan City(jibai0220@hanmail.net).
- Min Yeong Kwak** : She received her B.S., M.S., Ph.D. in Nursing from Inje University, Korea in 2018. She i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at Kyungsoo University, in which she has taught since 2018. Her interesting subject and area of research and education is mental health, injury prevention, PTSD, PTG, etc., with the most recent thesis name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Factors Influencing Posttraumatic Growth of Earthquake Victims (2019)"(mykwak@ks.ac.kr).
- Eun Ha Kim** : She received her Ph.D. from Inje University, Korea in 2018. She is the deputy director of the Busan Seogu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Her major is psychiatry nursing and her research interest are depression and suicide prevention programs. Her recent published articles are "Development of Community Mental Health Program Using Evidence-Based Practice", "The effects of parent education o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for mothers with young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y"(eunha4392@daum.net).
- Su Mi Kang** : She graduated from Daedong College Nursing Department, and she received her master's degree in nursing from Dong-A University, Korea in 2015. She received her Ph.D. in Nursing from Inje University, Korea in 2018. She had worked Dong-A University hospital for seven years. She i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Daedong College, Busan. The most recent thesis named "Concept Analysis on Nursing Student's Emotional Competency for Enforcing of Crisis Management Competency (2018)"(rkdtnal@hanmail.net).

Han Na Yi : She graduated from Silla University Nursing department, and she is currently studying for a master's degree at Inje University. She had worked Busan Seo-gu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for five years. Her major is psychiatry nursing and her research interest is recovery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hanna1004a@naver.com).